

사설

3자 협의회를 구성하자

학교 총장선출에 관한 논의가 서울캠퍼스 중심지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는 일단 과거 제단의 임명직인 총장 임명 방식은 공이 과잉된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이 다음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즉, 교수회의와 직원노조에서 제시한 총장후보 선출 규정안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교수들은 교수노년의 적성화를 도모해, 그리고 노년노조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3자 협의회 구성을 통한 총장후보 선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학원의 3주제가 이렇듯 과거 총장선출 방식의 근본적인 폐단을 덜고 이어진 것은 반가를 얻어 버린 그 다음 단계에서 협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대학행정의 핵심자는 총장의 선출을 담당할 때 학과 구성을 책임지는 교수들의 존재가 중요하다. 해고나 해직의 발단이 남보일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의 지도층이라 임명직이 교수들은 왜 이것을 꺼리는지 그 이유를 고집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교수들이 그렇게 바라고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5일차 교수노조에서 교수회의의 입장을 밝히기를 '교수회의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이 방안을 추진했고 다수의 교수들이 교수직선 총장 선출을 바라는데도 3자 협의회 구성을 비협조적이고 시의 적절치 못하며 오히려 총장선출에 혼란과 차질을 준다'고 밝혔다. 과연 이런 주장이 총장선출이라는 데의를 넘겨놓는 시점에서 설득력있는 주장이 될까. 단지 이기적이고 편협주의의 소산이라고 볼 수 없다.

직원노조와 서울 총학생회가 총장후보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상태에서 교원이 상반된 반대편인 3자 협의회는 충분히 구성되리라 확신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교수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정당한 추곡수매 바란다

최근에 올 때쯤 실시되는 추곡수매가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정부의 차가운 농민정책에 더욱 충격을 느끼는 추곡수매기간. 올해는 더욱 추울 것 같다. 농민의 피해상황이 말하지 않고, 정부입장은 예년과 별 다를바 없고, 추곡이 라도 협상의 압력까지 더 심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농민의 피해는 200%에서 95%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엄청나다. 이에 수확을 포기한 농민도 허다하다.

인부라도 수확을 해서 추곡수매를 하려하면 앞날이 더 캄캄해진다. 정부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1천 2백만 원 수매에 14.7% 수매가치 인상분을 턱없이 부족함, 9백만 원 수매에 6% 가치인상분을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똑같은.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하고, 추곡수매가 결정될 때까지는 차가운 농민정책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매가치를 올린다고 해서, 정부는 이렇게 그만두고서도, 정부는 차가운 농민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쌀이 고가인 농민들을 위해 더 이상 물러가 해서는 안된다.

자율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바라며

시행한 바만, 맑은 날에, 학생들만 예수를 알리는 관례 카드들만 교정이 편지 모르게 화려한 분위기를 지니었다. 학생들은 준비하는 일꾼들은 일이나 짜증스럽고 고단했을까. 그래도 학생들의 주제에 할아 한다는 사실때문에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마음이 우울해 지는 것은 모두 손 허부주의의 중요한 유혹이란 말인가. 성대한 전지 앞에서 흥취와 활기찬 모습이 있 격격해 지달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특별한 기분 속에서 평가 조표가 달린 각자의 색깔을 견디다가 하찮게도 부질없는 소망을 감히 벗으로 옮겨가 되었다.

질문대에 화려한 수놓여진 행사 포스터를 보면서 물었다. 민주주의를 위한 걸음을 우리는 앞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국가권력에 대한 규탄과 지향이라는 측면에서만 민주주의를 이해한 입장이라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자유와 권력을 남용하고 권부들이 특권과 특권을 나누고 미약한 여부의 형상, 부질없는 정의를, 사문 형상의 실현과 개인의 발전노력이 서로 밀려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비민주주의의 기를 내버리고 되어온 것이 아니었는가?

한편의 발전은, 한편의 지리점을 넘어서는 준비 속에서 체위전 학과 공부의 성과, 신문 공부 등을 통한 현실의식의 노련미, 학내 상황에 대한 소견을 담아야 할 수 있다. 그 일관 내용의 집적체들은 또한 학교 사업의 일체, 수장진퇴의 참모서, 소모된 회의의 밀면장이 되어 효과와 반이 될 수 있다. 학원적 관습과 관습이 인성과 맞물리고 그 내용이 서로의 통찰력을 자극하는 일상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부의 자율성과 전체의 통일성이 서로를 지향하는 질서의 창조, 그것을 시도하는 학생 한 사람의 한마음이 될 때 지향과 포스터의 출렁거리는 한층 소중하고 뿌듯하게 느껴질 수 있다.

김두재 <동양 > 이범어 >

추천미군을 페리호에 실어서 소말리아로...

추천미군을 페리호에 실어서 소말리아로... 페리호 선주 - 전투력이 남아있는 러시아에 대해 알아보시라. - 골짜기 - 추천미군 파병을 하지. - 미인 93 - 소말리아에서의 반미파병. 파병을 요청을 하지. - CZ 69 - 우리에게 앞장서 있어라. 은권한 발만 있을 뿐이다. - 재활동 운동가 - 내 고향, 내 힘으로 승부하다. 오지마라. - HJ. 김동미 - 바다에 빠져 죽는 것도 어울린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다 건너까지 가서 죽으라. - 외대 마니 -

우리 씨 모두 말한다. 저지하지, 파병 / 없애자. 진배 / - 한국어마니협회 -

- 법 90 - 우리나라에는 함포가 없다. 함포는 미국이 파병해라.

- 티미네이터 91 - 하얀전쟁 2가 나오게.

- CZ - 송년국이 되는 것은 전쟁을 없애는 것이다.

- 올랜더 - 우리에게 남은 남자가 없겠군 /

- CS 과부 - 유교내전엔 왜 파병하느냐. 유교 내배지.

- YU 동방불패 -

주제: 제2의 베트남, 미국의 소말리아 파병 요청을 보며

클린턴을 소말리아로 보내자고 요청하라. - 석 -

□ - 외대학보를 읽고

흡산의 소리

총장선출, 우리가 할 일이다

윤인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 열기가 한층 켜이고 이젠 다시 학과와 분회를 다시 다져야 한다. 대성전, 동구대, 후방관 건립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지만 정발도 중요한 학과의 문제는 향후 2천원대 중용대를 건설하는 데 머무르지 될 민주총장선출 문제도 그것이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직선제가 실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발 단행의 의지를 나타내고 발군의 의지가 충만한 총장을 선출해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외대의 모두에게 주어질 사명이다. 그러나 총장선출 문제는

외대인 전체가 하나가 되어 추진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양캠퍼스의 분열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학교측 또한 중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양캠퍼스의 분열정황에 답답했다. 더 이상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 계속되는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면 외대인 전체는 미구할만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도 윤인캠퍼스에서는 총장선출에 관한 활발한 선전과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학교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접근 할 법안이 가능한 것이다.

유성욱 <서학 > 영어 >

‘신세대 현상’이 남발되고 있다

근대 신세대에 관한 논쟁이 극성이다. 신세대로 통칭되는 세대 중의 한 명인 나는 그러한 언변이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지방의 친구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한 언변들은 나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취임일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는 실업에 출신의 친구들은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았던 것만이나 개인 사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재 다 팔지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인공의 출신 친구들도 다들 대학에 가거나 대학을 위해서 재수, 삼수하는 식으로 사는게 아니라 가정사

정과 학업에서 오는 고민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태어난 날부터 열심히 공부해온 언변이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지방의 친구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한 언변들은 나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취임일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는 실업에 출신의 친구들은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았던 것만이나 개인 사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재 다 팔지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인공의 출신 친구들도 다들 대학에 가거나 대학을 위해서 재수, 삼수하는 식으로 사는게 아니라 가정사

컨닝과 맞바꾼 외대인의 양심

나는 시골 때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 공부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굳이 시골 때가 아니라도 언제나 느끼는 것이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상처에 걸쳐진 바이지만 학생들의,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심해지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목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가 다르게 학생들의 사고가 인주의화 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사고는 대학이 무엇인 하는 곳이라는 데 대한 인식도 없이 할아버지 때 되거나 강연에만 휘둘러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많이 불편해도 상관 없다는 지극히 유아적인 사고가 문제다.

정수가 우리의 앞길을 희미하게 하는 순간 상황은 논외로 하자. 도서관 좌석의 독점 문제가

는 자처하고, 시험장에서 벌어지는 일만 이야기 해보면, 시력이 시라워진 적임이든 학생이며 배이 글로써 백백해진다. 나, 사명을 통한 평가가 유에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줄도 모른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라도 점수를 높여야 한다'라고 보는 태도이다. 학생 위에 전복해 놓았나 시험 성적의 적절성을 조그마한 부정을 열 강의를 모욕 버려서 시험을 망쳤다는 후담을 하고, 젊은 시골이 대안이 무엇이 하는 곳이라는 데 대한 인식도 없이 할아버지 때 되거나 강연에만 휘둘러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많이 불편해도 상관 없다는 지극히 유아적인 사고가 문제다.

정수가 우리의 앞길을 희미하게 하는 순간 상황은 논외로 하자. 도서관 좌석의 독점 문제가

독자 만평

UN

매의 최후는...

이진아 <동양 > 이범어 >

인재와 기술로 세계에 도전하는 국민기업 - 삼성

오후 4시 이후 - 삼성인의 뒷모습엔 표정이 있습니다.

7시 출근, 4시 퇴근 - 회사에서 학기적으로 도입, 실시하는 조기퇴근, 제도 삼성인의 오후가 조금 특별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강 배편 오후 4시, 삼성인은 6시의 입문을 정리하고, 내, 유, 인력: 방송을 등반도 한 해 퇴근: 나옵니다.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이가 시선은 자기개발과 휴식으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취미로 삼은 조깅, 등산, 테니스, 유류, 삼성의 전 임직원들은 퇴, 퇴의 이가 시선을 향하여 그동안 이렇게 지평계로 소중히 했던 외국어, 컴퓨터, 영어 등 함께 일어났던 자신의 생활을 찾게 되었습니다. 삼성인은 오후 4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감한 제도개혁과 질위중점으로 초일류기업 추구를 하는 삼성 - 삼성은 끝없는 도전과 자기혁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와 만나고 싶습니다.

SAMSUNG 삼성

민중선출 둘러싸고 각 단체들 입장차 커

교협, 직원·학생 배제한 직선제 교수 노조·총학, '3자 협의체' 구성 주장



노조는 올해 총선선출에 각·간접적으로 모든 학내 재주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교협, 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총선선출을 둘러싸고 학내 제 단체들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학내 근근은 분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기존서 '우리소속'과 유관자를 통해 총선선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7일

경하고 객관적 인사행정 조서를 용인케끔 노력하는 발전은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등 9개항에 걸친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또한 총선선출에 있어 3자 구성원의 직·간접적 참여와 후보자적에 대해 노조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교수협의회 또한 지난 22일

용인 단위연합, 확대운위 개최 후보권선선풀계 계속될 듯

지난 4일, 14대 원민주 총학생회와 대한 불신임과 단위학생회연합으로의 권한이양이 실제 학생투표에서 가결됨으로써 출범한 단위학생회연합(의장: 서양학대 학생회장 박영창)의 1차 확대운영위원회가 지난 13일(수) 학생회관 식당에서 개최됐다. 단위학생회연합에서는 단위 학생회연합의 이후 사업으로 '2000년 1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대의원 지명권 수교 투쟁전개 스가를 농촌환 돌싱 실시 15대 선거 실시 등을 확정 발표했다. 또한 단위학생회연합 강화를 위해 △노조 연석회의, 집행위원회, 운영회의 공개 △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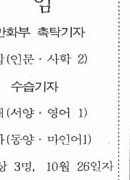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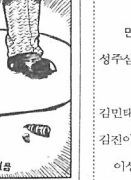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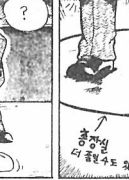
5개년 세부안, 12월로 발표 연기

당국, 행정착오 때문이라고 밝혀

5개년 계획 세부안이 행정착오를 이유로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개년 계획 기본 구성안 발표시에 대한당국은 구성안에 따른 세부안을 2학기 초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당국은 처음의 2학기 초보다 훨씬 늦은 12월 초로 발표시기를 늦추고 있다. 기획연구처는 발표시기 지연 이유를 일부 부서의 행정 착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차 관련 기

교무처, 강의평가 설문 배포 이번 학기, 희망 교수 한해 실시

교무처는 강의 평가제 실시를 위해 강의평가용 설문지를 문헌을 만들어 각 과에 배포할 예정이다. 총 3가지 설문지는 각각 교무처, 학생회, 학생회로 나누어 배포되며, 강의에 대한 학생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평가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평가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설문지는 학기말에 학생들에게 배포·회



생수집

새내기와 터줏대감의 한집살이

화해공학을 전공한 선경이(트러디) 작품공정 강지희의 배가만하던 신입사원시절은 순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소한 호정에서 인치리 방식에 이르러까지 장급까지 나이많은 현상사원들과 함께 생활하기란 여간 힘이 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상기성으로 급하게 이루어진 결혼때문에 방수하:라 예를 따른 부름— "장기서 비록 좋은 집은 아니지만 우리집에 들어와 사는 것은 어때요?" 이런 제의: 한길 땀에도 같은 몸집의 터줏대감이 그:때는 부담스럽기만 했던 존재였었습니다. 2년 이후로 새내기와 터줏대감의 한집살이가

시지되었고 근무중에는 물론 퇴근후에도 속심은 대화와 함께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기사 생각이나 의견에 동감하는 것도 있었지만 현상경험의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러 조금 심하게 했지요." "전반의 말씀입니다. 우리 회사가 오늘에 이르는 것도 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형님같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 아닙니까?"

노사관계는 서로 강등하거나 대항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해가는 관계입니다. 마치 한술만 먹는 한식구처럼 같이 생각하고 존중한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鮮京그룸

◇도서관 학습환경을 점검한다

'퇴색하는 상아탑'과 '고질적인 불편'

대학에서 학습, 연구기능의 중추로서 정보의 중심 공급자인 도서관은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자료의 정보제공에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와 더불어 학습과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과 정서적 환경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면에서 본 도서관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캠퍼스의 경우 자료목록을 이용할 때 많은 불편

공간의 비합리적 배치와 부적절한 학습환경이 문제

'학문의 전당' 기능 다시 되살려야

을 관계한다. 서고에서 책을 대출할 때 2중에서 목차를 찾아야 1층으로 내려가야 하는 공간배치의 문제점이 노정된다. 특히 2층 서고를 이용할 때 서고로 통하는 문이 1층에만 있어 그 불편을 더하게 한다. 이 문제와 관련, 도서관 관계자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57년 개관 이래 공간배치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 고안해 볼 문제라며 뚜렷한 대안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학본의 학생들이 2층에 있어 외부소속 연구자들이 1층에 있어 학습환경의 열악함을 느끼고 있어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1층에 넓은 빈터나 위치수가 7백 여석으로 학생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캠퍼스에 있어서도 서울대 사본은 취원에 노정된 것이 있고 유엔에 소중하며, 태극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외부소속 연구자들이 1층에 있어 학습환경의 열악함을 느끼고 있어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1층에 넓은 빈터나 위치수가 7백 여석으로 학생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캠퍼스에 있어서도 서울대 사본은 취원에 노정된 것이 있고 유엔에 소중하며, 태극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외부소속 연구자들이 1층에 있어 학습환경의 열악함을 느끼고 있어주고 있다.

'93 시월제, 27일 막 올릴 예정 30일 '외대인의 날'

'93 시월제 27일 막 올릴 예정
30일 '외대인의 날'
'문물기 이후에 걸 93 시월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다. 오는 27일(수)부터 30일(토)까지 나흘동안 진행될 이번 시월제는 개로 40년은 맞는 내년을 대비하여 동문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외대의 역사를 살피며 외대인의 자긍심을 살린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개별 행사로는 노정관장에서 열리는 '교수 학생 대동 한바탕 및 개제'를 필두로 '세계 민속 예술 제전'이 동·서양이 상설 행사로는 민속주점, 리가 경리, 세계의 거리, 동문기원 초상 경연 등의 여러가지 행사가 있다. 이번 행사의 기회를 총괄한 서양대 학생회총장 정종성(서양·독어)은 "외대 발전의 주역인 교수·학생·직원·동문 등 전 외대인이 하나되는 지리로 이번 행사는 준비했다"며 후에 시월제가 준비하는 지를 밝혔다.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한솔밥 한식구)

한솔밥 한식구(노)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20여년 동안 함께 일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20여년 동안 함께 일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20여년 동안 함께 일하는 사이입니다.



조각배와 김치배가 가족의 단란한 저녁

본연의 목적 벗어난 PKO 활동

외신분석

격동의 아프리카 소말리아

독립 이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불안, 피폐한 경제환경 그리고 내전 등으로 이어져왔다.

아프리카 뿐이 아니라 중남미,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지부티 등의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지역의 모양이 초의 모양으로 생겨난 채(유대)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소말리아도 예외는 아니다. 소말리아 국가는 1975년 1월 26일 이디오피아 인민당(GNP)과 2,200만여 인구의 아프리카 각 국에서도 21번째로 독립했다.

본국에서는 소말리아가 현재 내전하고 있는 심각한 기아와 이에 따른 비극적 죽음의 유례를 반복하고 있다. PKO의 활동이 그 분란에 그리로 영향을 주지 못하리라 기대한다.

소말리아의 기아와 PKO 파병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말리아도 독립을 단행한 이후 국가건설과 경제개발을 위해 국민적 단결과 국가적 단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치의 불안정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전과 기아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독립 당시 소말리아는 적당할 정도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지만 1975년 1월 26일 이디오피아 인민당이 이끄는 군대가 소말리아를 침공했다. 이듬해 12월 31일 이디오피아 인민당이 이끄는 군대가 소말리아를 침공했다. 이듬해 12월 31일 이디오피아 인민당이 이끄는 군대가 소말리아를 침공했다.

다국적군 파병을 강요하였다. '희망회복작전'(Operation Restore Hope)이라고 명명된 이 작전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유엔, 미국 등 28개국에 의해 약 3만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이 작전은 그 목적은 유엔군규약을 위반하여 식량수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정치적 안정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작전을 강요하는 인도주의적 목적에 국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유엔의 개인 후원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지난 3월, 15개 반군파벌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최대 규모의 이디디오 파벌 중 3개 파벌이 휴전협정에 불만을 갖고 협의를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디디오 세력이 6월 5일 유

아,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과 계속적인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는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계속해서 고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클린턴 미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정치적 실정을 고려하여 연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유엔의 결의에 따라 미국과 프랑스는 이 작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전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미국과 프랑스는 이 작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는 초기 드문 단연 민족으로 구성되고 있고 그들은 민족적 자긍심이 대단하며 외세의 개입을 싫어하는 민족이다. 따라서 소말리아의 정치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서 외부세력이 아닌 내부세력의 노력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UN이 담당해야 했다. 그런데 현재의 소말리아 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통적 사회적 관례를 들면 원로와 중년 지인 등으로 구성된 원로회의가 있다. 이 원로회의는 민족적 자긍심을 유지시켜 결국 평화유지군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소말리아 군중들이 미군 사자를 끌고 다니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 내일신문>

정치적 불안정, 기아 초래 미국 내전 간섭, 마찰 빚어

희망회복작전

소말리아에 '희망회복작전'의 사명을 띠고 파병된 미국이 작전임무를 받으면서 소말리아에 사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미국은 소말리아에 '희망회복작전'을 파병함으로써 소말리아의 국면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작전의 목적은 유엔군규약을 위반하여 식량수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정치적 안정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만평

앤드 소속 파키스탄 병사 24명을 살해하자 미국은 아이디오 세력을 격퇴 목표로 삼아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아이디오 세력파와 반군에서 수백명의 소말리아 민간인이 살해되는 등 희생자가 촉발하자 아이디오 세력은 반미 반외국에 정통을 내세워 미국 등 유엔군을 격퇴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미군 17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을 당했다. 작전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이 작전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미국과 프랑스는 이 작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현 <대학원 아프리카지역학과 석사과정>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경제정의의 실현을 저해할 것으로 보아 보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사진: 시사저널>

보완 필요한 경기규칙

엄격한 세무행정 실시해야

실명제 중간평가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로 요약될 수 있다. 실명제의 실시로 일반국민이 지급과 지출은 고문을 인식, 일회적인 것에 비해 앞으로 겪을 고문은 세무부 중대에 따른 영구적인 것이므로 실명제의 실시목적과 정책이 부합을 두고 조세정책은 다른 어느 정책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실명제 실시의 관련되어 검토해야 할 조세정책의 내용은 개입으로 두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보완 필요한 경기규칙

엄격한 세무행정 실시해야

실명제 중간평가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실명제 실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초점은 현재의 각종 어려움 여건속에서 실명제 자체가 어느정도 수용·정착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종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취해져서 실명제 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지는 두 가지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과 말과도 보충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 강화가 중요하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세무행정의 강화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급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바탕하여 수백종의 예문을 제시하고 설명한 우리말·우리말의 지침서

새 맞춤법과 교정의 실제

저자/미승우 ● 책임감수/이승구

대학입시 수험생의 실력향상에 대비한 문법과 맞춤법 지침서이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 줄 것입니다. 성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의 국어 무엇이 문제인가

리 의 도서

이 책은 오늘날의 국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헤친 책이다. 허공에 뜬 이론의 나열을 줄이고, 실례를 분석·비판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26,000원

전국 유명 서점에서 잘리니에 판매중

(주)어문각 서울 중구 관철동 12-23 대표전화: 730-5291 팩시: 738-5210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의 인기는 갈라랑스 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çaise

Adolescents-Adultes

유학 상담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갈라랑스에서 시작하세요.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의 國際學校

매일 1월 개강 - 수시 등록 · 수강

Alliance Française

외국어 교육 1번지!

현대 시사 어학 학원

HYUNDAI SISA LANGUAGE INSTITUTE

英語 · 日語 · 中國語

- TOEFL
- TOEFL L.C.
- TOEIC
- AFKK 청취
- TIME
- Voc. 22,000
- 영어순화
- 영작연습
- 실전수업영어
- 영어실력기초
- 성문종합영어
- 영어회화(한국인)
- 영어회화(미국인)
- 일본어 초·중·고급
- 일본어회화(일본인)
- 중국어 초·중·고급

ECC 영어 회화 과정

- 정원제 · Level Test 실시
- 전강사 · Native Speakers

일본인 일본어 회화과정

매일 1월 개강 - 수시 등록 · 수강

파고다 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뒤 전화: 276-0509(代)

눈과 머리에서 입과 귀로

개강: 11월 1일

오리엔테이션

11월 1일 AM: 7시 PM: 8시

인턴십: 미지정

日本語 회화

- ★ 듣고 + 말한다
- ★ 듣고 + 쓴다
- ★ 체험학습 60분
- ★ 한인 일인연계강의

I.M.I 영어회화

- ★ 전원 Native speaker
- ★ Level 5단계
- ★ 각 3개월

컴퓨터 영어회화

보고, 듣고, 느껴서 입으로 출출 쏟아지는 기적의 영어학습으로 숨쉬 쉬우면서도 흥미있게...

일미일외국어학원

도량진 전철역 옆 일미일B/D

☎ 817-9362-3

□전교조 특별 담화문 발표에 대하여

이제는 교단에서



지난 15일 정해수 위원장이 전교조 탈퇴교수 조건을 수용하고 복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5일 (화) 정해수 위원장의 특별담화문 통해 정부의 전교조 탈퇴교수 조건을 수용하고 복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명분과 현실의 관계에서 고심한 전술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15일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전교조는 대외적으로 "조직원 복직을 위한 긴사 항쟁"을 선포해 놓고 있었다. 지난 9월 28일 오 일간지에서 '전교조 10월말 전원 복직'이란 기사를 내지 '사실과 다르다'며 10월 15일부터 정해수 위원장 "교육개혁과 복직을 위한 특별담화문"이라는 문장 계획을 발표했다.

복직과 동시에 30만명의 학생 가르쳐 명분과 현실속에서 고심한 전술적 결단

또한 전교조는 국제 교육 노동 총연맹의 승인을 얻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정부의 조기 개혁 분위기가 조급해 붙어지고 보수화되는 사회분위기가 교육부가 변화된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결정 배경에는 4년여에 걸친 해직생활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나 계속된 지도 또는 이 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도 지적 않게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의 담화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명분배양에 호의에 비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는 "교육개혁과 학교개혁"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실현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요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

우선 전교조가 교사로 돌아가서 어떠한 교육 개혁을 펼칠 수 있었는지, 현재와 같은 교육 현실 앞에서 전교조 탈퇴교수 내외 활동은 어느 것이 가능한지라는 문제이다.

또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어떤 것이



전교조 위원장 정해수씨를 만나서 교단에서의 참교육 실천

—4년간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을 정리하면

=전교조와 함께 했던 각 부문 단체의 성원이 헌법이 명시 상부하 교육민주화 실현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이제 교육현장에서 참교육 실천 사업들을 펼칠 것이다.

—앞으로 전교조 활동에 대한 우려의 소리로 들리는데, 현재 전교조 80%를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다. 전교조 조약한 믿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전교조 탈퇴에 서명한다 하더라도 조직원들이 조합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에서 이번 결정은 이루어졌다.

—명분상실이란 이유로 조직원들의 이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발표 후 조직원들에서 충격이 컸다. 놀라움과 분노를 받을 것이다. 그 분노는 명분에 대한 상실보다 이 시대에 한계에 대한 통탄과 분노이다. 개인적 어려움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 결정이 '전술적 의미'로서의 결정임을 이해하고 따르라야 생각한다.

—과과제인 전교조, 합법과 운동은 어떻게 되는가. 전교조는 얼마전 정부의 교육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육 노동에 가입하였다. 이것은 세계 인정하는 전교조를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의미한다. 전교조가 교육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해직교사가 복직하여 일선에서 참교육 실천에 노력할 것이기에 전교조 합법화는 시간문제이다.

—교사가 노동자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노동은 권리와 '노동' 운운하면 끝내세력으로 취급받기 일췌하다. 참교육은 참의 기쁨이다. 교사 자신이 노동자적 자세를 갖지 않고 어떻게 제자들을 훌륭한 일꾼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아이들에게 능력이 있는 일선에서 사투에 봉착할 수 있는 노동권을 심어주고 싶다.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대학생들도 많다는데, 이번 결정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명분을 지켜야 했지 단 정형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바란다. 항상 자존심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 전진을 위한 일보라도 생각해주고 계속적으로 전교조를 사단해주시길 바란다.

<전국대혁신지원단 서울지부 남부지부 공동기자단, 정리-사회부>

소금과 물만 40일째

3월 전원복직 방침이후 복직된 노동자 없어 노동법 개정의 한 부분으로 정치쟁점화

김영삼 정권의 개혁의지에 실체가 가려진 채 의롭게 단식농성중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9월 28일(수)부터 현재까지 물과 소금만 먹으며 단식농성중인 '전국 구축·수배·원로' (이하 전해수)이다.

85년부터 87년 노동자 파업까지 해직된 노동자수는 5천 7백여명에 이르렀다. 그 뒤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쟁의 과정에서 해고됐다.

그러나 이들의 복직은 국가의 노동쟁의를 통해 신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지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 전국 해고 노동자가 모여 전 해투를 조직했다.

전국 노동법 개정의 개개교사로 복직문제를 정치쟁점화 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들의 힘으로 정세를 주도적으로 돌리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전원 복직시켰다는 정부의 방침이 지켜지지 않자 이들은 민주당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1백여명에 달하는 농성을 하던 전해수 노동자들 중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방위특별법상 5년 이상 방위 산업에서 일한 사람은 방위



마포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중인 해고 노동자들

인정, 정부는 해고자 전원복직 방침을 내렸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 복직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

23일(토)에 원진문제 해직교사 해고자 복직을 위한 명동실업농성 추기대회를 하던 노동자의 대학생 2천여명은 정부를 제재하고 그 배후단을 동원해 전진했다. 이 과정에서 11명이 중상을 입고 전해수 노동자 한 명이 머리뼈가 전방 정도도 심하게 다쳤다. 또한 55명의 학생과 노동자도 강제 위압됐다.

생존권 수호를 위해 거미대 나온 이들에게 정부의 모습은 파의 다른 배 없었다.

금요일명예 추기대회를 위해 해직교사들을 위해 정부에게, 그리고 이것을 배신한 국민들에게 해고자 복직 문제는 지렛대 사수 수단은 해고자들의 생존권을 방치하는 길은 '개미 드림'의 땅에 매 먹집을 하는 길이다. 조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동원 기자—

“만민교·반사회 집단, 통일운동 대에서 출마하라”

지난 19일 (화) 오후 2시, 대학원 로비는 2백여명의 본교생과 통일교 측과 몸싸움으로 유권의 보기도 현상이었다. 한쪽 '기독교 학생 연합회'에서는 "통일교는 사이버 종교"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다. 민교 밀리는 몸싸움으로 학생들의 체이레. 위에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도 없다" 따지는 소리로 곳곳에서 연성이 나왔다. 말로 하지마 학생들을 믿어 주십시오. 흥분한 학생들은 밀고 당기다 인장이 깨져 화가 나 물방을 가리키지 않는 등 통일교측과 본교 학생들의 절렬한 몸싸움은 한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대학원 조수장에서는 이미 한학자 총재 정태호의 '참부모와 성자시대'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과 통일교측이 자리를 정리하고 정면으로 마주 앉았다. 집회 추도하고 있던 총학생회장최국

몸싸움과 강연회

민경총(상정-경총)은 '87년 민주화 열기 이후 88년 전국적으로 수배되었던 '원리연구회' 측을 무명 7천 5백여명에 의해 제명당해 쫓겨났던 통일교가 버티고 들어와 신성한 헌법에서 권리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 원리연구회가 위대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려고 열성하였다. 무하라는 소리가 돌아 통일교측에서도 반발음 호르 나셨다. 학생회에서 침의 하기를 받았다.

원리연구회 노동자 단위에 87년 총회대, 대과대에서의 학생운동 정형에 대해 최정 불순물이라는 때로 하는 음모를 꾸민고 최근 유력 신나고 '모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고 표현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서고를 가지고 사상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서기 통일교 세력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미 지신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최근에 대학에서 통일교의 움직임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발하다. 본에서의 같은 상황은 10월 31일 서울대를 필두로 단국대, 명지대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에서는 학생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 강연 자체가 무산되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 있다.

전국적으로 '원리연구회'가 학원에서 잡거나 88~90년 이전, 통일교가 학내에서 행한 학생운동 방해공작을 기억하는 이들은 '통일교 학내 전진'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만나 기자—

金星産電

핵심적이고 생산적인 산업사의 창조

“미래 자동화사회를 여는 가장 앞선 기술”

- 전기 전자분야
- 서비스실비분야
- 환경-에너지분야
- 산업자동화분야
- 환경-에너지분야

금성산전은 종합 산업 전기-전자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 조형류 기업에 지향하는 금성산전은 산업 전문분야에 강한 종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첨단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GS 金星産電部門

- 金星産電 ●金星計測
- 金星機電 ●金星I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 (신곡동) 17호 17층

TEL: 02-550-1111 FAX: 02-550-1112

